

석유품질원, 검사시료 내부판매 말성

노영민 의원, 시중가격의 20-30% 수준에 ... 예산 5억5900만원 낭비

석유품질관리원이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하고 남은 시료를 시중가격의 20-30%로 직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국회 지식경제위 노영민(민주당) 의원은 10월6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“시험에 사용하고 남은 시료는 관리원의 업무차량용으로 우선 사용해야 하지만 내부 직원에게 휘발유는 리터당 300-400원, 경유는 120-200원에 판매했다”고 밝혔다.

또 “2005년부터 2008년 4월까지 발생한 잔여 시료 중 휘발유 28만3000리터, 경유 24만3000리터를 처분하면서 휘발유의 95%와 경유의 79%를 직원에게 팔았다”며 “잔여 시료를 업무용 유류로 사용했을 때보다 5억59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”고 지적했다.

그리고 “관리원은 2006년 4월에 품질검사 수수료를 리터당 0.269원에서 0.430원으로 45.4% 인상했는데 수치 분석 자료를 조작한 후 자금 부족을 이유로 수수료 인상을 구 산업자원부에 요청해 101억60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”고 주장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10/07>